

# 청주고인쇄박물관 - 반크 협약식

## 금속활자본 '직지' 세계에 알린다

청주 고인쇄박물관(관장 이철희, www.jikjiworld.net)은 지난 9월 27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대표 박기태, www.prkorea.com)와 공동으로 "On-Off 직지 세계화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On-Off 직지 세계화 캠페인"은 해외 주요 교과서, 백과사전 출판물, 웹사이트에 직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시정하는 프로젝트로,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해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이는 '직지'가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기록물에는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개발한 것으로 잘못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뛰어난 우리 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국가 위상을 한층 높인다는 뜻도 있다.

이철희 관장



### 문화 민족의 자부심 제고에 기여할 것

#### 'On-Off 직지 세계화 캠페인'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청주 고인쇄박물관의 축적된 고인쇄 관련 양질의 자료를, 반크의 잘 갖추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세계에 '직지 바로 알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전세계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나아가 관련 교과서와 전문서적 수정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직지'의 세계화를 통해 현대의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식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지'는 고대 지식문화 전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속활자의 증거입니다. 이런 직지를 세계에 홍보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발견하고, 세계의 무한경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앞으로 '직지 홍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밝힌다면

금속활자 인쇄술은 수많은 문화를 탄생시킨 지식정보의 어머니와도 같은 유산입니다. 이때문에 '직지'는 인류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직지 홍보'는 세계의 문화 발전을 이끈 발명이라는 것과 함께 민족의 자부심을 드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은 주로 ▲해외에서 출판되고 있는 외국 교과서, 백과사전, 인터넷 등 해외 주요 웹 사이트들의 직지 정보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해 ▲VANK 홈페이지에 캠페인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여 VANK 회원들 및 국내외 네티즌들이 직접 해당 출판사 또는 웹 사이트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올바른 직지 정보를 담은 책자를 포함한 친선 서한 또는 오류정보 시정 권고 서한 등을 보내는 것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내외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공동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반크 김기태 팀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해외 오류시정사업을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인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 출판물 및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가 한국



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가치’, 이를 개발한 한민족의 ‘창조적 가치’, 세계 지식 정보 확산에 기여한 한민족의 ‘인류 문화적 가치’ 등 ‘직지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

박기태 대표

## ‘직지’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알릴 터

### ‘반크’에 대해서 소개 바랍니다.

반크는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영어약자로서 인터넷상에서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 친구들과 한인동포, 입양아들에게 이메일로 한국의 모든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관광가이드입니다. 동시에 한국을 모르는 전세계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바로 알리고, 전세계 외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친구맺기를 주선하기도 하는 사이버 외교사절단입니다. 외국교과서, 인터넷, 외신 속의 부정적인 한국이미지를 개선하고, 외국인과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On-Off 직지 세계화 캠페인’의 구체적인 진행방향,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우선 ‘직지’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 ‘창조적 가치’, ‘인류문화사적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직지 정보 현황을 파악해, VANK 회원들이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올바른 직지 정보를 담은 책자로 보급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과 연계한 교육사업을 통해 해외 80여개 국가에 대한민국을 잘 알 수 있는 교육자료가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참여하는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청주시 고인쇄박물관과 협력하여 공동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전세계에 한국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